

성공적인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한 북한 방문 길라잡이

임윤출 / 한겨레 북한전문기자

머리말

경 제계를 비롯해 언론·사회·문화 분야 등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방북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대개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사업을 염두에 두고 북한 땅을 밟고 있지만, 더러는 호기심을 채우고 관광을 하기 위해 방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최근의 흐름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과의 사업이나 이런저런 관계를 맺기 위해 가능한 북한을 자주 방문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쪽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남쪽 인사를 받아들여 나름대로의 실리를 챙기려는 의도와 맞아 떨어져 북한 방문은 이제 대북 사업 추진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전처럼 중국 베이징 등 제3국에서 남북한 인사가 만나 협상하고 사업 의향서나 계약서 등을 맺을 수도 있겠으나, 북한에 직접 들어가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서 책임자를 만나 사업을 협의하는 것이 사업의 진척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보다 안정된 사업 기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 땅을 직접 밟아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인들은 각종 상담은 물론 임가공 혹은 합작 대상 현지 공장 등을 미리 둘러보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잦은 방북은 무엇보다 상호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 또 남북을 자주 왕래하다 보면 새로운 대북 사업 아이템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돼 남북 교류 협력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새로운 대북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도 방북은 필수

방북은 일단 첫 물꼬를 트면 2차, 3차 방북은 보다 쉬워진다. 문제는 첫 방북 때다. 과연 누구를 만나 초청장을 어떻게 받아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것일까. 일정 협의는 누구를 만나 어떻게 해야 하며, 첫 방문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방문자 수는 갈수록 늘고 있으나 방문과 관련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방문 케이스마다 소요되는 비용과 일정 등이 조금씩 달라 취합하기가 어려운 탓도 있겠으나, 대부분 방문 등도 일종의 노하우로 인식돼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도 이러한 정보들이 제대로 취합되고 이용할 수 없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성사된 첫 방문인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미리 알고 방문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방문 성과는 크게 달라진다.

현재 북한 방문 초청장은 대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에서 발급한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민족경제총연합회(민경연) 등에서 초청장을 발급받는 경우도 많고,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들은 더러는 북한의 특정 해당 부서에서 초청장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 초청장을 받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대개는 과도하게 부풀려져 알려져 있는 것 같다. 초청 비용은 현금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나 구호 물자 지원 형태나 현물 형태로 초청 비

용을 대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방북 인사나 단체가 북쪽과의 어떤 신뢰 혹은 이해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따라서도 초청 비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투명한 금액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북한 쪽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남쪽 초청 인사의 신분이나 소속·능력에 따른 초청 비용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또한 협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초청 비용 문제를 비롯한 방문과 관련된 모든 실무 사항은 대개 베이징에 파견나와 있는 아태쪽 관계자들과 협의하게 된다. 이들은 3개월 단위의 출장 형태로 베이징에 머물며 남쪽 인사들의 대북 사업이나 방문과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할 사항들은 평양 아태 본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이들이 다시 평양에 돌아갈 때는 업무 인수 인계 절차를 받은 후임자를 반드시 연결해준다. 또 평양에 머무르는 동안의 각종 연락을 주고받을 제3의 인물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들은 서로간의 연락 업무를 중개하거나 결끄러운 문제 등을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북쪽과의 순조로운 일정 협의가 방북 성과를 좌우

방북을 며칠 앞두고 대개 베이징에서 실무 협의를 몇차례 거치게 된다. 이때는 주로 비용, 숙박 호텔, 현지 일정, 면담 인사 등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 누굴 만나며 어디를 돌아보는지 전혀 모르고 일단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초청장을 발급받고 방북 기간이 결정된 경우 비자는 보통 하루 전날 나오도록 되어있다. 북한대사관 영사부에 직접 나가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찾아와야 한다. 방북 인사가 아직은 제한되어 있어 절차를 밟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비자 수수료는 1인당 45 달러이며, 이때 비자용 사진 2 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비자가 나온 것이 확인돼야 평양행 고려항공권을 받아올 수 있다. 항공권은 예약이 가능하다. 국내 여행사에서도 고려항공 예약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 예약할 경우 증개인을 통하기 때문에 수수료 등이 붙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도 많다. 가능하면 하루 일찍 베이징에 들어가 파견 나온 고려항공사에서 예약과 발권을 받으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1등석은 16 석이며 편도 기준으로 1인당 200 달러, 보통

석은 160 달러이다. 수화물은 초과 화물 1kg마다 2.5 달러를 더 내야 한다. 매주 화·토요일 두 차례 있는 베이징-평양 왕복 고려항공은 오전 11시 30분(베이징 시간) 베이징 공항을 출발해 오후 2시(평양 시간)에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다. 묵을 호텔은 방문자 쪽에서 미리 파악해 숙박 희망 호텔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북쪽 초청 기관 쪽에서 방문자의 신분 등을 고려해 호텔을 잡아 도착 하루 전날 통보하는 경우도 많다.

일단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하면 꼭 귀빈이 아니더라도 초청 기관 쪽에서 공항 마중을 나온다. 이들은 남쪽 방문자들이 호텔에 짐을 풀기 전에 들르게 하는 곳이 있다.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이나 만수대기념동상 등이다. 그리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 협의 과정에서 제일 많은 진통이 따른다.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첫날 일정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방북 기간 내내 호텔방에 갇혀 있다가 귀환을 하루·이틀 앞둔 상황에서 희망하는 몇 군데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방문자들은 현지에 도착하면 대개 북쪽 초청 기관에서 미리 짠 일정을 따르고 있다. 특별히 방문하고

싶은 곳이나 만나고 싶은 인사가 있다면 미리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북쪽에서 짠 일정이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얘기하면 최근에는 북쪽도 이해하고 일정에서 빼주는 경우가 많다. 협상이 잘 진행될 경우 일부 일정은 방문자가 원하는 대로 짜여질 수 있다. 이는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북쪽의 태도로 개별 행동도 상당 부분 허용된다.

일정을 협의할 때는 방문대표단 가운데 한, 두 명의 협상 대표를 정해 처음부터 끝까지 북쪽을 상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북쪽 협상 대표 혹은 수석안내원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면 방북 전체 일정을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다. 현지 관광 일정은 대개 첫 일정에서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만경대 생가를 시작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개선문, 주체탑 등을 집중적으로 둘러보게 하고 있다. 이들 건물은 김정일 당 총비서의 지시에 의해 아버지 김일성 주석에게 바친 건축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효도를 강조하여 가부장적 통치 예술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째날 저녁에는 대개 초청 기관쪽 대표 주최 환영 만찬이 있게 된다. 이튿날은 평양 시내 관광을 통해 긴장을 풀게 된다. 만경대 김일성 주석의 생가, 주체탑, 개선문, 신미리애국열사능, 인민대학습당 등을 둘러보게

된다. 특히, 최근에 어김없이 관광 일정에 포함되는 곳이 있는데 이는 신천박물관이다. 김정일 총비서도 최근 방문해 관심을 표명한 바 있는 신천박물관은 반미 교양 학습 장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곳이다. 묘향산 등의 관광 일정은 대개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고 있으나 방문자 쪽에서 일정을 단축해 하루만에 다녀올 수도 있다. 방문자가 실향민일 경우 북쪽 초청자 쪽에 미리 요청하면 이산 가족 상봉 등의 기회도 갖게 된다. 북쪽 당국이 보이고 있는 태도 가운데 과거와 특히 달라진 대목으로 이들은 방문자의 신분이나 소속에 상관없이 가능한 이산 가족을 찾아주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방문 기간중 토·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때는 대개 관광 등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무 협의할 사항이 많을 경우 북한 초청 기관쪽 인사들은 쉬지 않고 사업 협의에 응해준다. 대개 방북 일정 마지막 날에 의향서나 계약서 등을 교환한다.

첫 방북에 성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금물

제안 사업은 방문자의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계속해서 방북이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첫 방북을 순조롭게 마치면 그 협의 성과에 따라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 창구를 지정받는다. 북쪽 인사들은 남쪽 방문자가 처음 방북에 너무 많은 요구를 내놓으면 본능적으로 제안 의도를 의심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제의에 대해 북쪽에서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나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대북 관계에서는 정서에 호소하며 비공식적이고 참신한 발상을 가진, 그리고 제안 기관의 성격에 맞는 순수한 성격의 사업 제안이 잘 먹혀들고 있다.

첫 방북 때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역시 가장 큰 몫은 이른바 ‘수업료’로 불리는 방북초청장 발급 대가이다. 각종 비용을 지불할 때는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 최근에는 남쪽 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달러 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북쪽 관계 인사들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현금으로 직접 받기 보다는 거래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일단 초청장이 나오면 기타 비용은 보통 초청 기관이 협의 과정에서 체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요청한다. 그러나 미리 방북 초청 비용을 패키지로 지불한 경우 현지에서 북쪽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기본 비용들로는 호텔 숙박, 각종 오만찬 등 식사 접대 비용이 대표적이다. 이외 각종 공연 행사장 참관 비용과 차량 임차료 등이 있다. 묘향산·금강산·일부 지방 참관 때는 전용 비행기까지 전세를 낼 수는 있으나 비용은 상당히 비싼 편이다.

각종 비용들은 대부분 美 달러화로 결제된다. 일부 호텔 등에서는 비씨, 마스타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카드 결제보다는 거의 현금 결제가 이용된다. 호텔 숙박비는 호텔, 초대소 등에 따라 상이하다. 보통강호텔의 경우 1박 기준 스위트룸 150 달러, 더블 75 달러 정도다. 스위트룸에는 침실 2 개, 소파 1 개가 놓여 있다. 고려호텔은 1등실 160~180 달러, 2등실 120 달러, 3등실 100 달러 수준이다. 초대소의 경우, 한 층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통 1주일에 700~800 달러를 지불한다. 기타 호텔 만찬 비용은 8 명 기준 300~400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고려호텔이나 보통강호텔 등은 비즈니스룸을 따로 두고 있다. 현지에서는 한국으로의 직통 전화가 불가능하나, 일본 東京이나 중국 베이징 등을 경유한 통화나 팩스 전송은 가능하다. 통화료는 아주 비싼 편이다. 체류 비용은 건

마다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내원과 협의해 미리 전체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일정을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폐는 미화 100 달러짜리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현지 물건을 구입할 때는 달러와 외화와 바꾼 돈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한 최근 발행된 미화 100 달러짜리 지폐를 바꿔가야 한다. 구 지폐의 경우 교환이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위조 지폐 가능성때문이다. 환전은 미리 모든 금액을 다할 필요는 없고, 안내원과 협의해 그날그날의 일정에 따라 하는 것이 좋다. 안내원에게 부탁하면 환전을 해준다. 선물은 남자의 경우 양복지, 넥타이 등이 선호된다. 그러나 빨강이나 노랑 등 밝은 색은 금물이다. 여자의 경우는 향수 등이 괜찮은 선물로 꼽힌다. 주류는 미리 사가는 것도 선물용으로 대체하거나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 코냑 정도면 무난하다. 담배는 현지 안내원이나 운전자 등에게 선물하는 데 편하다. 말보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제 마일드세븐 등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가격이 저렴한 썬글라스도 북쪽 안내원이나 운전수가 선호하고 있다. 국산은 쥐뿔자 쓸모가 없다. 모기업이 자사 제품의 각종 전자·전기 제품

을 선물용으로 가득 들고 갔으나 이들 선물들은 지금도 대개 창고에 썩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을 공공연하게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쉽상이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선물을 구입할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평양내 대표적인 백화점인 락원백화점, 호텔 상점 등에 널려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수입품이다. 특히, 문구용품, 전자 제품은 일본제가 대부분이고 술, 향수 등은 유럽산이다.

방북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

선물을 전달할 때 첫날은 서먹서먹해 대부분 개인적인 선물을 받지 않는다. 대개 둘째 날부터 주면 대부분 고맙게 선물을 받는다. 여러 명의 안내원이 있을 경우 수석안내원에게 주는 것이 상례다. 그가 따로 나눠주게 되어있다. 가능한 표시 안 나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안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 격이 높은 북쪽 인사들에게 선물할 때도 가능한 안내원을 시켜 주는 것이 좋다. 협상 중에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은 가능한 지양하고, 공식적으로 전달할 경우 미리 북쪽 인사들의 격이나 숫자를 파악해 선물을 나눠주도록 해

야 한다. 현지 호텔 내에서는 자유롭게 쇼핑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호텔을 벗어날 경우에는 안내원이 특별히 안내하는 곳에서만 쇼핑이 가능하다. 가능한 안내원에게 원하는 품목이나 추천 품목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다. 이들을 통할 경우 최대 절반 가격에 현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현지에서의 언행도 주의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호텔방 등 밀폐된 공간은 100% 도청 장비가 갖춰져 있다. 호텔 내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으나 호텔 밖을 나설 경우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능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는 화제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북쪽 인사에 대한 호칭은 '선생'이 무난하고, 기타 명함에 적혀 있는 직위를 사용해도 좋다. 남쪽은 이러한데 북쪽은 이렇더라 식의 남북을 비교하는 발언은 절대 하지 말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남쪽에서 받은 편지나 쪽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도 금물이다.

휴대품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현지 의료 상황이 열악한 관계로 기본 상비약은 만약을 대비해 꼭 휴대하는 것이 좋다. 감기약, 설사약, 벌레물린 약, 소화제 등은 필수다. 또 수시 방북자들은 휴대 전화, 비파 등 무선 기기는 실수로라도 가지고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담배 등도 가능하면 한국산일 경우 내놓고 필 생각은 말고 차라리 외국산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현지 주민들에게 줄 생각으로 작은 선물이나 초콜릿, 껌 등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북한 주민들은 먹는 것이나 작은 선물을 건네주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소형 녹음기, 몰래카메라 등의 휴대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쉽상이며, 카메라 지참 등은 가능하지만 아무 데서나 찍어서는 안되고 현지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원만한 일정에 도움이 된다. 당연히 한국 돈이 쓰일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한국 잡지·신문 등도 가능한 내놓고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기념으로 비디오 촬영 등을 희망할 경우 현지 '내나라비디오제작소' 등에 맡기면 편리하다. 비용이 부담이 되기는 하나 생생한 화질이 보장된다. 평양 순안비행장 도착부터 떠나기까지의 모든 일정을 비디오에 담아준다. 비용은 협상과 일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개 1주일 기준으로 2,000~3,000 달러이다. 일부 방문자는 비디오를 직접 가져가 촬영을 끝낸 뒤 가져간 비디오를 기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디오나 사진을 찍을 때는 아무에게

나 사진 찍자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양해를 얻고 동의를 구한 뒤에 찍어야 한다. 건물이나 사람들을 함부로 찍게 되면 크게 오해받게 된다. 보여주기 싫은 곳만을 골라 일부러 찍는 것도 금물이다. 차량 안에서 밖의 사진을 찍는 것도 안내원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다. 찍은 사진은 고려호텔, 보통강호텔 등에 입주해 있는 사진현상소에 맡기면 비교적 빠른 시일내 안전하게 필름과 인화된 사진을 떠나는 날 찾을 수 있다.

옷차림이나 휴대품 등에 한국에서 온 것이라는 표시가 지나치게 크게 드러난 것은 금물이다. 입국시에는 보통 정장을 입고, 그리고 현지에서도 정장 차림으로 참석해야 할 곳이 더러 있어 가능한 검정색 계통의 양복과 와이셔츠, 구두 등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가능한 진한 빨강·파랑·노랑 따위의 색으로 치장된 화려한 계통의 옷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수시 방북자들의 충고이다. 방문자들은 또 과거와 달리 북한 주민과도 쉽게 맞닥뜨리게 된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보든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굳이 일부러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된다. 불쑥 다가가서 무엇을 물어보거나, 선물 등을 불쑥 내밀어서도 안된다. 이유없이 웃거나 비웃는 등의 모습을 보여서도 안된다. 특히, 무슨 말을

들으면서 기록하는 행위는 현지 주민들의 비위를 거슬리기 쉽다고 많은 방북자들은 전하고 있다. 현지 출판물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방문 기관이나 호텔 등지에 특정 장소에 놓여있는 「로동신문」이나 잡지 등은 본 뒤 그대로 놔둬야 한다. 구기거나 찢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기념으로 가져간다고 가방 등에 넣어서도 안된다. 특히,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총비서 등의 사진이 실린 신문이나 출판 인쇄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는 손가락으로 종업원을 부르면 안된다. “저좀 보십시오”, “여기 좀 와주세요”, “여기 좀 봐주십시오” 등으로 깎뚝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북쪽의 식량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㉞